

꿈의 법칙



김 주 식의
세태 만화경

사람들에게 꿈이란 게 없다면 어찌 되었을까? 평창 설원의 꿈길을 걷고 있던 엇그제, 내 안의 내가 나에게 그렇게 물어왔다. 상상만으로도 팍팍해진다. 어쩌면 삶을 살아가게 할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마음의 발에 무지개를 수놓는 꿈! 그것은 매년 갑탄사를 끌어냈다. 그 갑탄의 꿈이 지금 평창의 메밀 눈꽃 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찰나의 초를 닦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꿈들이 날개를 펴고 있다. 꿈을 향해 질주하는 명장면들을 만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지구촌 동계올림픽의 대항연! 세계 최고의 기량들이 다 모인 것만으로도 찬란함이 극치를 달린다. 그러나 저 번득이는 메달 경쟁의 현실은 냉정하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을 올림픽 족보에 오롯이 장식하려면 전당의 문을 열 황금열쇠를 거머쥐어야 하는 것을. 꿈이란 거저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다. 땅에 씨를 심고, 비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땅과 눈물을 바치고, 그래서 하늘도 감응해야 비로소 아! 그토록 꿈꿔왔던 메달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신성한 별이다.

꿈을 향한 원초적 질주 본능! 내 어릴 적 추억의 풍경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네 아이 한 녀석이 뛰면 나머지 아이들도 덩달아 내달리는 풍경. 누가 어서 달려오라고 손짓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유 없이 달렸다. 아이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등산에 올라 아래 마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러면 까닭모를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것은 막연한 동경, 말하자면 꿈을 좇으려는 원초적 본능이랄까. 가슴은 뛰었고, 그 속에 어떤 꿈이 꿈틀대고 있었던 거다.

꿈에는 불변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어른이 돼서야 깨달았다. 꿈이 영글기 위해선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체득했다. 꿈길로 가는 길은 늘 잘 닦인 것은 아니다. 어느 땐 탄탄대로를, 때론 비포장 흙길, 산길을, 더러는 길도 없는 사막을 저 홀로 달려야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강인함을 배우고, 꿈꾸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 않는다. 꿈은 나이밖에 없다. 젊은 꿈, 늙은 꿈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까닭이다. 영원한 청춘이다.

꿈은 야속하게도 꼭 쓴 잔을 마시게 하면서 성장하게 한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려는 약초다. 그런 꿈에도 비밀은 있다. 비상할 수 날개를 품고 있으면서도 땀 보여주지 않는다. 그만큼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겨우 한 자

락을 보여준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꿈의 법칙에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통한다. 하지만 한번 날개를 달면 저 멀리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 높이 올라 비상하니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밝은 비전을 한껏 그리게 한다.

꿈은 값진 보석을 만들라고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보석은 크기와 모양, 색상에 따라 품값이 극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게 꿈의 숙명이다. 그 과정에는 짝은 아픔과 고통이 있고, 갈고 닦아야 할 모난 위기와 좌절도 어슬렁거리기 법이다. 비현실적이고 치기어린 꿈의 편린들이 허망하게 허물어지는 것도 이 무렵일 게다. 값비싼 보석에는 절박한 현실이 배어 있다. 꿈이라는 것이 이상하면서도 현실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꿈을 떠올릴 때 미소를 짓곤 한다. 꿈들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가슴 벽차를 빛나서다. 그런 꿈을 값진 보석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미완성으로 폐기할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꿈꾸는 자의 몫이다. 때론 버거운 삶의 부피와 무게를 지탱하게 하는 꿈! 꿈의 법칙은 그래서 말한다. 도전조차 하지 않고 안 될 것이란 결론부터 먼저 내리지 말라고.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놀라운 세상을 이끌어낼 그 무궁무진한 꿈의 잠재능력을 꺼내 쓸 때다.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9억1400만원 전달

IBK기업은행은 13일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396명에게 장학금 9억1400만원을 전달했다. 대상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다. 기업은행은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6690명에게 102억원의 장학금과 1989명에게 84억원의 치료비 등을 후원했다. 김도진 행장(가운데)이 학생들과 포즈를 취했다. /IBK기업은행



신한생명, 독거노인 위한 '영양만점 선물꾸러미' 전

신한생명은 지난 12일 서울 가산동 사옥에서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영양만점 선물꾸러미 키트를 제작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고 13일 전했다. 신한생명 드림콜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장서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장, 정석재 신한생명 고객지원그룹장, 장석하 신한생명 CS지원팀장을 비롯 CS지원팀 직원과 드림콜센터 상담사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어르신 250명에게 전달할 영양만점 선물꾸러미 키트를 제작했다. 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설 명절 전까지 독거어르신 가정에 전달된다. 이번 사업은 CS지원팀 직원과 드림콜센터 상담사 370여 명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970만원의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신한생명

安·劉 '새로운 스토리' 쓸 수 있을까



기 지 수 접
이 창 원
(산업부)

지난해 대통령선거가 한창일 당시 한 정치권 인사와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후보들에 대해서 한 명씩 분석하던 그는 안철수·유승민 후보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꺼냈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번 노선이나 정책들이 아무리 준비가 됐어도 절대 될 수가 없다. '스토리'가 없다."

흔히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조건'으로 꼽는 스토리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군사독재 정권과의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엘리트 세계로의 진입 과정에서의

역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천막당사' 등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면 정치권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를 극복해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 토크콘서트 등으로 인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 정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는 딱히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유승민 당시 후보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사태를 겪으며 전국적으로 이름은 알려졌지만 그 이후 대통령선거 때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던 이들은 13일 자신들이 각각 창당한 국민당과 바른정당을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의 흡수 절차, 의미없는 통합, 낡은 정

치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념 갈등이 최고조인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러한 통합이 이뤄졌다는 것에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의 결과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이례적으로 제3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국회가 양극단으로 대립하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양측으로부터 '정당이 지속가능한 존재할 정도'의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이번 통합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며 이는 곧 안철수·유승민 대표 두 사람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mediaeco@metroseoul.co.kr



청호나이스 장학재단, 성적 우수 학생에 장학금 수여

청호나이스는 정취동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청호나이스 장학재단'이 지난 12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청호나이스 장학재단'의 장학금은 '나눔과 상생'이라는 재단 이사장의 이념을 바탕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전국의 학생을 선발해 국가와 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2010년 재단 설립 이후 매년 국내외 5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청호나이스 정취동 부회장, 이석호 대표이사(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등이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호나이스

인사

◆ 기획재정부 ◇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홍민석 △ 혁신정책담당관 정유리 △ 예산총괄과장 최한경 △ 예산정책과장 김명중 △ 예산기준과장 남경철 △ 기금운용계과장 김이한 △ 예산관리과장 오은실 △ 고공용계예산과장 박준호 △ 교육예산과장 허승철 △ 문화예산과장 이병연 △ 총사업비관리과장 박문규 △ 국토교통예산과장 신상훈 △ 산업정보예산과장 이상영 △ 농업림해양예산과장 조인철 △ 연구개발예산과장 장윤정 △ 복지예산과장 박찬환 △ 인건보조예산과장 이주현 △ 지역예산과장 류형선 △ 행정예산과장 강대현 △ 안

전예산과장 오기남 △ 국방예산과장 김우중 △ 조세정책과장 김중욱 △ 조세분석과장 변광욱 △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만희 △ 조세법령응용과장 노중현 △ 소수세제과장 박홍기 △ 법인세제과장 이호근 △ 재산세제과장 이형철 △ 부가가치세제과장 윤정인 △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배정훈 △ 관세제도과장 진승하 △ 산업관계과장 이호섭 △ 관세협력과장 장영규 △ FTA관계이행과장 김위정 △ 종합정책과장 주환욱 △ 경제분석과장 고광희 △ 자금시장과장 김명규 △ 물가정책과장 장보영 △ 정책기획과장 황인웅 △ 거시경제전략과장 심규진 △ 정책조정총괄과장 강기훈 △ 산업경제과장 이상윤 △ 신성장정책과장 임상준 △ 서비스경제과장 김영노 △ 지역경제정책과장 천재호 △ 인구경제과장 한재용 △ 미래전략과장 박홍진 △ 국고과장 이재선 △ 출자관리과장 김동업 △ 재정전략과장 장정진 △ 재정정보과장 신인주 △ 참여예산과장 박지훈 △ 재정관리총괄과장 안상열 △ 타당성심사과장 신민철 △ 회계결산과장 조성철 △ 정책총괄과장 오상우 △ 재무경영과장 문경환 △ 인제경영과장 김영훈 △ 경영정보과장 임동규 △ 국제금융과장 문지성 △ 외화자금과장 이형렬 △ 외환제도과장 주현준 △ 국제통화과장 최지영 △ 다자금융과장 오재우 △ 국제기구과장 김동준 △ 개발협력

과장 나상근 △ 녹색기후기과장 이종훈 △ 대외경제총괄과장 김우진 △ 국제경제과장 장도환 △ 통상정책과장 이대중 △ 통상조정과장 지광철
◆ 한국가스공사 ◇ 부사장 △ 경영관리부부장 및 안전기술부부장 겸직 김명우 ◇ 본부장 △ 전략기획본부장 고호준 △ 경영지원본부장 신순식 △ 생산본부장 성영규 △ 기술사업본부장 최양미 ◇ 처·실장 △ 홍보실장 안길현 △ 비서실장 이은희 △ 생산건설처장 권우식 △ LNG사업처장 김인기 △ 인사노무처장 김재기 △ 전략경영처장 김환용 △ 혁신경영처장 양재형 △ 통합보안처장 유진명 △ 해외사업처장 이경훈 △ 자원기술처장 이계정 △ 기술개발처장 이효진 △ 재무처장 이훈 △ 경영협력처장 임창수 △ E&P사업처장 조규영 △ 경영지원처장 최병집 △ 생산운영처장 한창훈 △ 신성장사업처장 홍석주 △ 공공건설처장 황동안 △ 지역본부장·기지장 △ 인천지역본부장 김차중 △ 대전충청지역본부장 박오근 △ 서울지역본부장 방양진 △ 전북지역본부장 이흥복 △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임춘호 △ 인천기지장 김홍식 △ 평택기지장 박동열
◆ 삼성증권 ◇ 전무 승진 △ 신원정 △ 이재경 ◇ 상무 승진 △ 김용민 △ 이선욱

◆ 삼성카드 ◇ 부사장 승진 △ 이인재 ◇ 전무 승진 △ 박경국 ◇ 상무 승진 △ 김경희 △ 전진성 △ 최상웅
◆ 삼성자산운용 ◇ 승진 △ 상무 류주현
◆ 한국마사회 ◇ 실·처장 △ 비서실장 문운영 △ 말산입진총처장 추완호 △ 말산입진총합본센터장 김호균 △ 장수목장장 김영진 △ 단속처장 최수원 ◇ 부장급 △ 전략기획부장 김현권 △ 용산장외처리TF부장 황보석 △ 인재교육담당 조기원 △ 청렴감사부장 김광만 △ 준법경영부장 정대수 △ 운영지원부장 양철석 △ 자산관리부장 김대현 △ 노무후생부장 김한수 △ 회계부장 이길훈 △ 스포츠운영부장 노병준 △ 서비스혁신부장 최진영 △ 사업기획부장 유성연 △ 지사사실안전부장 황인환 △ 정보보안운영부장 김대환 △ 방산운영담당 안재민 △ 동대문문화공감센터장 노석천 △ 종로문화공감센터장 김봉환 △ 의정부문화공감센터장 박성균 △ 일산문화공감센터장 박진우 △ 인천남구문화공감센터장 최만규 △ 인천부평문화공감센터장 김한근 △ 인천중구문화공감센터장 김종선 △ 인천연수문화공감센터장 황규환 △ 부천문화공감센터장 송병곤 △ 강동문화공감센터장 허순석 △ 천문문화공감센터장 정정하 △ 천안문화공감센터장 이남용 △ 대구문화공감센터장 배기환 △ 광주문화공감센터장 정지연 △ 부산

동구문화공감센터장 이종근 △ 창원문화공감센터장 박정진 △ 기획담당 김태형 △ 건설담당 한두현 △ 진료담당 김진갑 △ 말산산업연구담당 장경민 △ 기획운영부장 김국연 △ 서울출발전문위원 전문정 △ 서울시설부장 박형민 △ 테마파크관리담당 최홍호 △ 부산방송부장 김진태 △ 제주경주지원관리부장 김하기
◆ 조선대 △ 교무부처장 겸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정세종

부음

▲ 유영숙씨 별세, 한원호(벨아이앤에스)·미혜·경혜씨 모친상, 정성승(금용감독원 부원장보)씨 부모상 =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4일 오전 11시, 02-3010-2411~2
▲ 이관철(프르바목기사 4단)씨 별세 = 12일 서울 동신병원, 발인 14일 오후 1시, 02-395-1024
▲ 김진수씨 별세, 김현철(목원대 전산정보과 계장)씨 부친상·최규선(LH 차장)씨 장모상 = 12일, 연세원주 기독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4일 오전 11시 30분, 033-744-3970.
▲ 장인출씨 별세, 장병선(대전지방경찰청 W보계 경감)씨 부친상 = 12일, 대전 대청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42-587-444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21-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이 장 규
인쇄인	(주)중앙일보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